

LG CNS, 국내 유일 '트리플 크라운'

MS·AWS·구글 클라우드 인증

LG CNS가 국내 최초로 3대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의 생성형 인공지능(AI) 전문 인증을 모두 획득했다. LG CNS는 마이크로소프트(MS)에서 '애저 AI 앱 빌드 전문 기술 역량' 인증을 받았다고 31일 발표했다.

이 인증은 MS 클라우드 애저 기반의 애플리케이션 설계·구축·운영 기술력에 대해 제3자 감사를 통과하고, 직원 역량 강화 등 기준을 충족한 파트너만 획득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자격이라고 LG CNS는 설명했다. LG CNS는 MS와 AI, 클라우드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AI 도입을 고민하는 기업들이 프로토타입을 제작하고 도입 효과를 사전에 검증할 수 있는 '이노베이션 저니 워크

숍'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앞서 LG CNS는 국내 기업 최초로 아마존웹서비스(AWS)의 '생성형 AI 컴피턴시' 인증을 받은 데 이어 아시아 기업 최초로 구글 클라우드의 '생성형 AI 전문기업' 인증도 획득했다. LG CNS 관계자는 "클라우드 기반 AI는 물론이고 LG AI연구원의 '엑사원', 글로벌 AI 기업 코히어와 공동 개발한 추론형 대규모언어모델(LLM) 등을 활용해 고객 맞춤 AI 모델을 구축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고 강조했다. 김태훈 LG CNS AI·클라우드사업부장은 "글로벌 클라우드 3사에서 공인받은 AI 전환(AI)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업 고객의 비즈니스에 최적화된 AI 서비스로 차별적 고객 가치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우 기자

문화일보

2025년 7월 31일 목요일 017면 경제

아마존·구글에 이어 MS 인증까지 LG CNS 'AI 인증' 3종 모두 획득

"엄격한 기준 요구되는 자격"

■ LG CNS는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의 클라우드 플랫폼 '애저' (Azure)를 활용한 인공지능(AI) 앱 빌드 전문기술 인증을 획득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LG CNS는 글로벌 클라우드 서비스 3사인 MS·아마존웹서비스(AWS)·구글클라우드의 생성형 AI 전문 인증을 모두 보유하게 됐다.

이번 인증은 MS 애저를 기반으로 한 AI 앱 설계·구축·운영 사업 성과와 기술력에 대해 제3자 감사를 통과하고 직원 역량 강화 등 엄격한 기준을 충족한 협력사만 획득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자격이라고 LG CNS는 설명했다. LG CNS는 제조·금융·공공 등 다양한 산업에서 MS의 기술을 활용한 대규모 AI 프로젝트를 수행해왔다. 양사는 AI 도입을 고민하는 기업들이 시제

품을 제작하고 도입 효과를 사전검증할 수 있는 '이노베이션 저니 워크숍'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 중이다. 지난 3월 '마이크로소프트 AI 투어 인 서울'에서는 LG CNS가 파트너로 참여해 제조·금융 등 산업 분야에서 생성형 AI를 이용한 혁신 사례를 선보였다. 앞서 LG CNS는 국내 기업 최초로 AWS의 '생성형 AI 컴피턴시' 인증을, 아시아 기업 최초로 구글 클라우드의 '생성형 AI 전문기업' 인증을 획득한 바 있다.

LG CNS는 고객맞춤형 AI 서비스 제공을 위한 멀티 엔진 전략을 가속화하고 있다.

김태훈 LG CNS AI·클라우드사업부장(전무)은 "기업 고객의 비즈니스에 최적화한 AI 서비스를 통해 차별적 가치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호준 기자

매일경제

2025년 8월 1일 금요일 A16면 종합

AWS·구글 이어 MS까지

LG CNS, 클라우드AI 인증

LG CNS가 글로벌 클라우드 서비스 3사의 생성형 인공지능(AI) 전문 인증을 모두 보유한 국내 첫 기업이 됐다. LG CNS는 아마존웹서비스(AWS), 구글에 이어 마이크로소프트(MS)에서 '애저(Azure) 기반 AI 애플리케이션(앱) 빌드 전문기술 역량' 인증을 획득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인증은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플랫폼 애저를 기반으로 한 AI 앱 설계·구축·운영의 사업 성과와 기술력에 대해 제3자 감사를 통과하고 고객 성공 사례, 직원 역량 강화 등 엄격한 기준을 충족한 파트너만이 획득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자격이다.

김대기 기자

서울경제

2025년 8월 1일 금요일 A18면 산업

LG CNS, MS서도 AI역량 인정 받았다

AWS·구글 이어 클라우드 빅3 인증

LG CNS(LG씨엔에스)는 마이크로소프트(MS)로부터 클라우드 서비스 '애저' 기반 AI 앱 빌드(개발) 전문기술 역량 인증을 획득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로써 LG CNS는 이번 MS를 비롯해

아마존웹서비스(AWS), 구글 클라우드 등 글로벌 클라우드 서비스 3사의 생성형 AI 전문 인증을 모두 확보하게 됐다.

MS의 인증은 클라우드 플랫폼 애저를 기반으로 한 AI 애플리케이션 설계·구축·운영의 사업 성과와 기술력에 대해 제3자 감사를 통과해야 받을 수 있다. 류석 기자

내일신문

2025년 7월 31일 목요일 015면 산업

LGCNS, 인공지능전문기업 '글로벌 인증 3관왕'

마이크로소프트 인증 획득

LGCNS는 마이크로소프트로부터 '애저로 AI 앱 빌드 전문기술 역량' 인증을 획득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따라 LGCNS는 글로벌 클라우드 서비스 3사(마이크로소프트

AWS 구글클라우드)의 생성형 AI 전문 인증을 모두 보유한 국내 유일 기업이 됐다.

이번 인증은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플랫폼 애저를 기반으로 한 AI 애플리케이션 설계·구축·운영의 △사업성과 △기술력에 대해 제3자

감사를 통과하고 △고객성공사례 △직원역량강화 등의 엄격한 기준을 충족한 파트너만이 획득할 수 있는 최고 수준 자격이다.

LGCNS는 제조·금융·공공 등 다양한 산업에서 대규모 AI 프로젝트를 수행해왔다. 고성수 기자

LG CNS, MS서도 AI 관련 전문기술 인증 획득

LG CNS(LG씨엔에스)가 마이크로소프트(MS)로부터 '애저(Azure) AI 앱 빌드 전문기술 역량' 인증을 받았다고 31일 밝혔다. MS의 클라우드 플랫폼 '애저'에서 AI 서비스를 설계하고 구축할 수 있는 수준의 파트너에게만 주어지는 인증이다.

이로써 LG CNS는 MS뿐 아니라 AWS(아마존웹서비스), 구글 클라우드의 생성형 인공지능(AI) 관련 인증까지 모두 보유하게 됐다. 국내 기업 중에서는 유일하다.

이번 인증은 단순한 기술력뿐만 아

클라우드 '애저' 활용 프로젝트
MS와 협업 전담 조직 운영
아마존·구글서도 기술 인증
국내기업 중 유일 3곳서 인정

니라 실제 고객을 대상으로 성과를 낸 프로젝트 사례, AI 전문가 인력 확보, 기술 역량 평가 등 여러 항목을 모두 통과해야 받을 수 있다. LG CNS는 제조·금융·공공 분야에서 애저를 활용한 AI 프로젝트를 다수 진행하

며 자격을 인정받았다.

LG CNS는 MS와 함께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AI 워크숍('이노베이션 저니 워크숍')도 운영 중이다. AI 도입을 고민하는 기업들이 실제 업무에 적용해볼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3월 열린 '마이크로소프트 AI 투어 인 서울'에서는 LG CNS가 프리미어 파트너로 참여해 산업별 AI 활용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LG CNS는 MS와 협업 전담 조직도 따로 운영 중이다. 애플리케이션(앱) 현대화 전문가와 클라우드 설계

자들이 투입돼 기업 맞춤형 AI·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한다. 방대한 내부 데이터를 AI에 학습시키고(파인튜닝), 필요한 정보를 뽑아내는 검색 기능(RAG), 질문에 더 잘 답하도록 돕는 설계(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등을 적용해 고도화된 서비스를 만든다.

실제로 LG CNS는 한 제조기업의 설계 업무에 애저 기반 AI 검색 서비스를 구축했는데, 직원이 업무 중 발생한 문제나 궁금한 사항을 채팅창에 물으면 수백 쪽짜리 매뉴얼과 과거 유사 사례, 베테랑 엔지니어의 노하우를 종합해 AI가 최적의 답을 찾아준다. AI가 업무 동료 역할을 하는 셈이다.

박유진 기자

 The Korea Herald 2025년 8월 1일 금요일 005면 Business

LG CNS earns AI certifications from Microsoft, AWS, Google

By Chung Hye-lim

LG CNS, the IT solutions arm of LG Group, announced Thursday that it has earned the "Build AI Apps on Microsoft Azure Specialization" certification — making it the first Korean company to secure generative AI credentials from all three global cloud companies: Microsoft, Amazon Web Services and Google Cloud.

The certification is awarded to Microsoft partners who demonstrate proven success in building, deploying and managing AI solutions on Azure, and who pass rigorous third-party audits and demonstrate employee empowerment.

LG CNS has recently completed

projects utilizing Azure's AI services across industries including manufacturing, finance and public services.

As part of its collaboration with Microsoft, the company is also operating dedicated teams and an "Innovation Journey Workshop" to help enterprise clients prototype and validate AI-driven solutions.

Additionally, LG CNS runs dedicated teams such as the "MS Launch Center" and "MS Cloud Team," offering customized AI and cloud services with Azure specialists.

With this certification, LG CNS joins a select group of companies globally with verified expertise in generative AI application development across major cloud platforms.

(hyelimchung@heraldcorp.com)

친환경 기술로 글로벌 'AI DC' 공략



LG CNS(LG씨엔에스)가 다양한 에너지 효율화 신기술을 무기로 글로벌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AI 데이터센터 운영 관련 클라우드 인프라와 AI 솔루션 역량을 결합해 동남아 등 글로벌 확장에도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AI 데이터센터의 경우 AI 모델 학습 등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기존 데이터센터와 비교해 더욱 많은 양의 컴퓨팅 자원이 필요하다. 이에 많은 기업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는 동시에 ESG(사회·환경·지배구조) 경영 원칙을 지키기 위한 친환경 기술 도입에도 힘을 쏟고 있다.

LG CNS는 데이터센터 설계·구축·운영(DBO) 시장의 강자로서, AI 데이터센터의 친환경 기술 도입에 앞장서고 있다. 이러한 노력 중 하나로 LG CNS는 지난해 데이터센터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핵심 기술로 액침냉각을 선정했다.

액침냉각은 전기가 잘 통하지 않는 특수 유체에 서버, 저장 장비 등을 담가 열을 식히는 기술을 말한다. 열전도율이 높은 액체에 직접 열이 전달되도록 해 데이터센터의 서버 등에서 나오는 열을 빠르게 식힐 수 있다. 차가운 공기를 사용하는 기존의 공랭식 냉각 방식 대비 AI 등 고성능 장비의 발열을 제어하는데 효과적이다.

또 데이터센터의 전력 사용 효율성(PUE)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 자연 외



LG CNS의 부산 데이터센터 전경.

LG CNS, 친환경 AI 데이터센터 기술

액침냉각	특수 유체에 서버·저장 장비 등을 담겨 발열 제어
서버 집중 냉각	서버룸 전체를 냉방하지 않고 필요한 구역만 냉방
풍도 시스템	공기 순환을 극대화 위한 별도의 굴뚝 구축

자료 : LG CNS

기를 이용해 데이터센터 서버룸에서 발생하는 열을 냉각하는 친환경 시스템인 '빌트업 외기 냉방 시스템', 서버룸 전체를 냉방하지 않고 필요한 구역만 냉방하는 '서버 집중 냉각 장치' 등을 적용했다. 그 결과 2021년 평균 PUE 1.61에서 지난해 1.49로 감소했다.

친환경 기술뿐만 아니라 인프라 역량도 강화하고 있다.

LG CNS는 AI 데이터센터 서비스 구현에 최적화된 통합형 인프라 플랫폼을 제공할 계획이다. AI 데이터센터는 물리적인 센터 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인프라, AI 솔루션 영역 등이 함께 갖춰져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LG CNS는 AI 데이터센터 사업 가속화를 위해 계열사들과 기술 시너지를 지속 강화하고 있다. LG전자, LG에너지솔루션과 협력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지역에 구축하는 AI 데이터센터 사업을 수행 중이다.

3사는 원천 기술을 기반의 AI 데이터센터 시장 공략을 위해 각 사의 핵심 역량을 합쳐 '원(One) LG'라는 데이터센터 솔루션도 만들었다. LG CNS는 데이터센터 설계·구축·운영을, LG전자는 칠러, 냉각수 분배 장치(CDU) 등 냉방설비를 통한 열 관리, LG에너지솔루션은 배터리 설비 및 전기 기술을 맡았다. LG CNS 관계자는 "AI 데이터센터 관련 친환경 및 인프라 기술을 활용해 인도네시아를 시작으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인근 국가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류석 기자

텐센트 클라우드 “韓, 아시아 핵심지역… 게임 넘어 미디어·OTT 등 서비스 확대”



한국 진출 7년차인 텐센트클라우드가 게임 산업을 넘어 미디어·리테일·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다양한 분야로 클라우드 및 인공지능(AI) 기술 지원을 확대한다. 한국을 아시아 전략 핵심 지역으로 꼽은 텐센트클라우드는 글로벌 플랫폼 운영 경험과 AI 기술력을 앞세우며 국내 디지털 전환과 글로벌 진출을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이다.

지난달 31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텐센트클라우드는 이미 국내 게임 및 라이브 스트리밍 산업에서 핵심적인 기술 파트너로 자리매김했다. 국내 게임사는 텐센트클라우드의 멀티클라우드 인프라, AI 기반 개인화 추천 시스템, 인앱 커뮤니케이션 기술 등을 활용해 서비스 품질과 사용자 경험을 고도화하고 있다.

이처럼 텐센트클라우드가 한국 게임업계의 핵심 파트너가 될 수 있던 것은 대규모 플랫폼 운영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텐센트클라우드는 10억명 이상이 이용하는 위챗·웨이신을 운영하며 대규모 트래픽과 실시간 피드백이 요구되는 환경에서 기술을 설계하고 운영한 경험을 축적했다.

또한 모회사인 텐센트가 세계 최대 규모의 게임 생태계를 갖추고 있어 산업에 최적화된 기술과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허정필 텐센트클라우드코리아 컨트리 매니저는 “올해 회사가 한국에 진출한 지 7년이 되는 해이며 한국은 아시아 시장에서 가장 전략적인 핵심 시장 중 하나”라며 “실제로 국내 상위권 게



허정필 텐센트클라우드코리아 컨트리 매니저.

텐센트 클라우드 제공

임사들이 회사의 기술을 도입해 사용하고 있다”면서 텐센트 클라우드가 한국에서 매년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텐센트클라우드는 텐센트 그룹 전반의 디지털 생태계 운영 경험과 깊이 있는 소비자 이해를 토대로 한국 파트너들이 사용자 참여도를 높이고 새로운 수익 모델(BM)을 창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연결된 디지털 환경을 함께 구축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텐센트클라우드는 게임 산업에서 쌓은 역량을 토대로 미디어, 리테일, OTT 등 국내 다양한 산업군으로 기술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게임 외에도 소셜미디어(SNS), 이커머스, 산업용 사물인터넷(IoT), 엣지 컴퓨팅 등 국내 B2C 산업군에게 기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데 역을 확대하는 것이다.

허 매니저는 “텐센트클라우드는 고객 중심 및

韓시장 진출 7년… 매년 두자릿수 성장 자체 LLM ‘훈위안’, 산업 전방위 활약 서울에 가용영역 2곳 운영… 현지화 집중 한국기업 해외 진출 지원·협업 강화 방침

초형 서비스와 산업별·AI 기반 특화 솔루션, 현지화된 인프라, 인재 투자 등을 통해 파트너십 기반의 성장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이러한 자신감은 모회사의 AI 기술력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텐센트는 2023년 자체 개발한 대형언어모델(LLM) ‘훈위안’을 공개했다. 이 모델은 텐센트의 900개 이상 제품에 통합돼 있으며 공공서비스, 의료, 교육, 문화·관광, 금융, 제조, 유통 등 30개 이상의 산업 전반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이후 텐센트는 지난해 훈위안 터보, 터보 S 등 고성능 언어 모델과 올해 초 훈위안 T1을 공개했다. 훈위안 T1은 중국 최초의 고난도 추론형 모델 중 하나로, 글로벌 최고 수준의 모델과 견줄 수 있는 성능을 자랑한다.

텐센트클라우드코리아는 AI 활용 가능성을 적극 모색하고 있으며 특히 게임, 콘텐츠, 고객지원 등 실제 업무에 AI를 접목,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향후 생성형 AI 기반의 서비스를 한국 고객사에 제공할 계획이다.

허 매니저는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에서는 게임, 라이브 스트리밍, 리테일, OTT 산업 고객사를 대상으로 생성형 AI 기반 콘텐츠 제작 등 혁신 사례를 지속 발굴하고 사용자 참여도·전환율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AI 비즈니스 모델을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텐센트클라우드코리아에 따르면 대표적인 AI 유스케이스(사용사례)는 네이버제트의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이다. 제페토는 라이브 스트리밍 솔루션을 도입해 글로벌 방송 품질과 안정성을 확보했으며 전환 이후 연간 약 1500만 건의 방송 송출에도 장애율 0%를 기록했다. 또한 기존 10초의 지연 시간을 실시간 수준으로 단축,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켰다.

게임 산업의 경우 기획, 개발, 운영, 보안 등 전 과정에서 AI 솔루션을 통합 제공하고 있다. 기획 단계에서는 시나리오 자동 생성, 세계관 확장 등 창의적인 게임 구조를 속도감 있게 구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개발 단계에서는 이미지 및 애니메이션 자동 생성, 음성 합성 등을 지원하고 있다.

텐센트클라우드는 국내 기업이 요구하는 까다

로운 규제, 보안, 데이터 거버넌스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현지화와 커스터마이징에 지속적으로 집중해 왔다. 또한 서울에서 두 개의 가용 영역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 고객 전담 지원 조직과 현지 파트너사와의 협업 체계를 통해 더욱 긴밀한 기술 지원 시스템을 구축했다. 가용 영역은 클라우드 사업자가 데이터센터를 여러 지역에 분산해 운영하는 데이터센터 그룹을 의미한다.

텐센트클라우드는 현재 파트너사 지원, AI·미디어 기술 도입을 위한 인프라 투자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으며 특히 국내 주요 리셀러들과 협력, 현지 인재와 기술력을 결합해 AI 기반 디지털 전환 및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 향후 게임·커머스·인터넷 분야를 중심으로 엔지니어와 영업·기술 지원 인력을 보강할 계획이다.

허 매니저는 “한국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고 차이나’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 기업이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 장기적인 로컬 파트너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텐센트클라우드에 따르면 고 차이나는 중국 시장을 겨냥하는 기업에게 현지 인프라 구축, 규제 대응, 사용자 인사이트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위챗 생태계를 바탕으로 현지 사용자 기반에 맞춘 어플리케이션 현지화 및 유통 최적화를 돕고 있다.

허 매니저는 “회사는 여러 국내 기업이 중국 시장 진입 및 확장할 때 안정적인 기술 인프라와 정책적 지원을 제공해 왔다”며 “향후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하는 한국 기업과의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욱 기자



‘글로벌 AI 플랫폼’ 주요 현황

설립 시기	2023년 6월
위치	미국 델라웨어주 (실리콘밸리, 텍사스 오스틴 지사 운영)
설립 목적	북미향 AI 에이전트 서비스 개발
자산총액	750억 원 이상
주요 경영진	정석근 대표 및 정민영 최고기술책임자

자료: SK텔레콤

SKT ‘美 AI비서’ 전면 재검토 법인 청산 시나리오도 나왔다

SK텔레콤이 미국 법인 청산 가능성까지 열어 두고 북미 AI 에이전트 사업 방향에 대한 전면적인 조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막대한 자금과 시간, 인력 등을 투입했음에도 사업 진행 속도가 더디고, 제품 개발 성과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31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경영진 회의를 열고 미국 AI 에이전트 개발 법인 ‘글로벌 AI 플랫폼 코퍼레이션(GAP)’에 대한 사업 재검토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GAP에 미국 법인 청산 가능성도 거론한 것으로 전해진다.

회의에는 미국에 상주하고 있던 GAP 경영진 여럿이 일시 귀국해 참여했다. 이날 장시간 논의가 오갔지만 GAP 청산 여부에 대한 결론은 내지 못했다. 다음 달 중 추가 회의를 열고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다.

GAP은 SK텔레콤이 2023년 6월 북미향 AI 에이전트 사업 추진을 위해 설립한 손자회사다. 당시 SK텔레콤은 GAP 설립을 목적으로 네이버(NAVER) 글로벌 CIC(사내독립기업)의 정석근 전 총괄과 정민영 전 리더를 전격적으로 영입하며 큰 주목을 받았다. 정 전 총괄이 GAP 대표를, 정 전 리더가 최고기술책임자(CTO)를 맡고 있다. 또 김양섭 SK텔레콤 최고재무책임자(CFO)와 유경상 SK텔레콤 최고전략책임자(CSO) 등이 주요 이사진으로 포진해 있다.

현재 GAP은 SK텔레콤의 미국 사업 법인인 SK텔레콤아메리카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GAP은 미국 델라웨어주에 설립됐고, 실리콘밸리와 텍사스 오스틴에서 지사를 운영 중이다.

**경영진 회의 열고
기대 이하 성과에
GAP청산 등 논의
이달 추가회의서
최종 결정 전망**

**SKT “전략 회의”
청산설에 선그어**

**에스터 개발은 지속
10월 출시 목표**

또 경기도 성남시 판교동에는 실질적인 AI 에이전트 개발을 담당하는 조직인 GAP코리아를 자회사로 설립해 운영 중이다. 지난해 GAP은 자산총액이 750억 원을 넘어서면서 SK텔레콤의 주종속 회사로 편입되기도 했다.

SK텔레콤이 GAP의 사업에 대한 개편을 검토하는 배경에는 그동안의 사업 성과가 기대에 못 미쳤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한국에 비해 현저히 높은 운영 비용을 감수하면서까지 미국 현지에서 서비스 개발을 지속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또 조만간 추가 자금 투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회사의 방향성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실제로 GAP가 개발 중인 북미향 AI 에이전트 서비스인 ‘에스터’는 출시 시기가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다. 지난해 계획했던 에스터 베타서비스는 올해 3월에서야 이뤄졌고, 정식 출시 시기는 올여름에서 하반기로 또다시 밀린 상태다. 또 미국 AI 검색 기업 퍼플렉시티와의 긴밀한 협력을 전제로 투자 유치도 논의했지만, 최종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최악의 경우 GAP 법인 청산이 결정되더라도 에스터 서비스 개발은 계속해서 이어질 전망이다. GAP 내부에서는 오는 10월까지 에스터의 북미 시장 정식 출시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최근 GAP 법인에 대해 새로운 과제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회의를 진행한 것은 맞지만, 법인 청산까지는 거론되지는 않았다”면서 “실제 GAP가 청산 될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류석 기자

“예측 넘어 판단까지…AI 에이전트로 시장 읽는다”

사이트

인공지능(AI)으로 원유와 LNG 등 원자재 가격을 예측하는 ‘AI 마켓 인텔리전스’가 실제 사업에 적용돼 기업의 의사결정을 도우며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향후 단순한 의사결정 지원을 넘어 독자적인 판단이 가능한 비즈니스 도구로 진화시킬 계획입니다.

“인공지능(AI)으로 원유와 LNG 등 원자재 가격을 예측하는 ‘AI 마켓 인텔리전스’가 실제 사업에 적용돼 기업의 의사결정을 도우며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향후 단순한 의사결정 지원을 넘어 독자적인 판단이 가능한 비즈니스 도구로 진화시킬 계획입니다.”

박준 SK텔레콤 AI인텔리전스 사업본부장 겸 AIX테크본부장(부사

박준 SK텔레콤 부사장

장)은 기업사업(B2B) 분야에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략적 통찰을 제공하는 AI 마켓인텔리전스 사업을 이끌고 있다.

개발자 출신인 그는 지난해 SK AX(옛 SK C&C)에서 SK텔레콤에 합류했다. AI의 실질적 사업화를 주도하고 있다.

AI 마켓 인텔리전스는 SK텔레콤의 ‘에이전틱 AI’ 전략을 대표하는 솔루션이다. 박 본부장은 “AI 마켓 인텔리전스는 SK그룹사 내에서 유가, LNG, 반도체, 배터리 등 시장 수요와 가격을 예측하는 데 실제 적용되고 있다”며 “기존 방식 대비 정확도와 대응 속도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AI 마켓 인텔리전스는 기존 서비

스의 단순한 정량 모델링을 넘어, 수천개의 매개변수 기반 예측과 시나리오 플래닝, 대응 전략까지 제공한다. 무엇보다 AI 에이전트로서 통합 분석 기능을 경쟁력으로 내세운다. LNG를 예로 들면 날씨, 재고량, 심지어 신문기사까지 다양한 변수를 활용해 시나리오별 결과를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용자가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박 본부장은 “현재 마켓인텔리전스를 SK그룹사 내부의 AI 기반 의사결정 지원에 활용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외부의 다양한 산업군과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마켓인텔리전스는 7월 상용화됐다. SK텔레콤은 실 사용 사례를 통해 시장성·효과성 검증을 지속하고 있다. 그는 “AI의 예측력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유료 라이선스 모델

뿐 아니라, 마켓 인텔리전스에 필요한 전용 에이전트 플릿(대규모 동시 운영환경), 인터페이스(API), 시각화 툴 등을 통합 제공하는 플랫폼 모델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AI 마켓 인텔리전스는 SK텔레콤의 ‘A.X 플랫폼’ 위에서 구현됐다. A.X 플랫폼은 산업별로 특화된 AI 에이전트를 빠르게 구축하고 적용하는 범용형 개발 플랫폼이다.

박 본부장은 “SK텔레콤의 A.X 플랫폼을 기반으로 앞으로도 고객 맞춤형 에이전트들을 다양하게 출시할 예정”이라며 “기존에는 불가능했던 예측·판단·실행의 연결을 가능하게 하는 영역에서 새로운 기회를 발굴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장기적으로 사람 대신 일을 하는 AI 에이전트, AI워커를 많이 만들어내겠다”라고 덧붙였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AI 연구·투자엔 세제 지원 강화

웹툰 제작비도 공제해주기로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기업들의 AI(인공지능) 관련 연구와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국가전략 기술에 AI 분야의 5개 기술을 추가해 기업들의 적극적인 AI 관련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AI 분야 5개 기술은 텍스트·이미지를 생성하는 AI 기초 모델을 개발하는 '생성형 AI 기술', 기계 장치와 연동돼 산업 공정 운영에 활용되는 '에이전트 AI 기술' 등이다.

지난해 정부는 글로벌 기술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AI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는 것을 추진했고, 올해 3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반도체·이차전지 등 7개인 국가전략기술에 AI를 추가했다. 특정 분야가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되면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이 중소기업의 경우 30~40%에서 40~50%로 높아진다.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18%에서 25%로 올라간다.

기재부 관계자는 "AI 분야는 올해 초 국가전략기술로 지정이 됐지만 세부 기술이 없었던 상태였기에 이번에 세부 기술 5개를 신설한 것"이라고 했다. AI 분야 세액 공제는 올해 1월 1일 이후 AI 연구개발비나 투자분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또한 AI 우수 인력이 국내로 복귀했을 때 주는 소득세 감면 혜택 적용 기한도 연장하기로 했다. 독일 막스플랑크 연구소, 미국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 등 외국 연구 기관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이후 국내로 복귀하는 해외 우수 인력들은 '10년간 소득세 50% 감면'이 적용된다. 당초 올해 12월 31일이었던 적용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기로 했다.

K문화 및 콘텐츠 사업에 대한 세제 지원 방안도 이번 세법 개정안에 담겼다. 정부는 웹툰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한다. 인건비·저작권료 등 웹툰 제작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서 소득세 및 법인세 10%(중소기업은 15%)를 세액공제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웹툰의 경우 한국이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잘하는 분야이고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많아 세액공제를 신설하게 됐다"고 했다.

김승현 기자

“韓, AI 도입 세계 최고 수준... 생태계-투자 환경은 최하위권”

세일즈포스, 각국 AI 경쟁력 분석
‘규제 프레임워크’ 10점 만점에 9점
R&D 성과-산학협력 등은 1.8점
“자본 접근성-투자 네트워크 부재”

美, 독보적... 싱가포르-英도 고평가

국가별 인공지능(AI) 경쟁력을 분석한 결과 한국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AI 생태계 조성이나 투자 측면에서 뒤처진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미국 AI 고객관계관리(CRM) 기업 세일즈포스가 발표한 ‘글로벌 AI 준비 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AI 연구개발(R&D) 성과와 스타트업 활동, 산학 협력 수준을 평가하는 ‘AI 생태계’ 부문에서 10점 만점에 1.8점을 기록했다. 미국

(9.3점), 인도(4.0점) 등에 크게 뒤지는 결과다. 보고서는 한국이 인프라와 일부 응용 기술력에서 강점을 보였지만, 대규모 컴퓨팅 자원과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에서 대형 플랫폼에 대한 의존도가 여전히 높다고 지적했다.

이번 보고서는 △규제 프레임워크 △산업 및 정부 전반의 AI 도입 수준 △AI 생태계 △투자 환경 △인재 및 역량 개발 등 다섯 가지 영역을 기준으로 국가별 AI 준비 수준을 종합 분석했다. 분석 대상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미국, 영국, 싱가포르, 독일, 캐나다 등 16개국이다. 분석 대상에서 중국은 제외됐다.

특히 민간·공공 자본의 유입과 벤처캐피탈(VC) 활동을 측정하는 ‘투자 환경’ 점수는 0.8점으로 평균(1.4점)에 못 미칠 뿐 아니라 인도(1.0점), 사우디아라비아(0.9점)보다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보고서는 “자본 접근성과 투자 네트워크의 부

재가 한국 AI 생태계 확장의 주된 제약 조건”이라고 짚었다.

한국의 AI 역량이 아쉽다는 평가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올 4월 미국 스탠퍼드대 인간중심AI연구소(HAI)가 발표한 ‘AI 인덱스 보고서 2025’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AI에 대한 민간 부문 투자는 13억3000만 달러로 전년(13억9000만 달러)보다 줄며 투자 규모 순위가 9위에서 11위로 떨어졌다. 또 지난해 말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의 ‘AI 성숙도 매트릭스’에 따르면 73개국을 평가한 결과 미국과 캐나다, 영국, 중국, 싱가포르 등 5개국이 ‘AI 선도 국가’로 뽑힌 반면에 한국은 그다음 단계인 ‘AI 안정적 경쟁국가’에 포함됐다.

다만 세일즈포스 보고서는 AI 규제와 확산 영역에서 한국이 강점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AI 도입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의미하는 ‘규제 프레임워크’ 점수는 10점 만점에 9점을 기록해 싱가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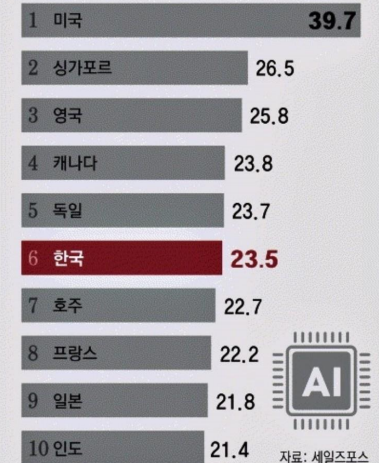
르, 영국과 함께 상위권을 차지했다. 특히 국가적 차원의 AI 전략과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각 산업과 정부 기관의 AI 적용 수준을 나타내는 ‘AI 도입 및 준비 상태’는 6.7점으로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제조업과 스마트시티, 물류 등 핵심 산업에서 AI가 빠르게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혔다.

한편 보고서는 미국이 연구개발 투자와 스타트업 생태계를 기반으로 한 혁신과 자본 투입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싱가포르의 규제·확산·인재 부문에서 균형 잡힌 모델을 구축해 높은 점수를 받았고, 영국과 캐나다는 의료와 공공 서비스 분야의 AI 적용이 주목을 받았다. 독일은 제조 경쟁력과 직업 교육 시스템을 기반으로 AI 도입을 확대하고 있지만 자본 유치 측면에서는 약점을 보였다고 평가됐다.

김하경 기자 whatsapp@donga.com

글로벌 AI 준비 지수 순위 50점 만점.



기업 임원 3명 중 1명 “AI 효율적이면 인력 대신 도입할 것”

HR통합 플랫폼 ‘딜’ 244명 설문
57%는 “일단 추이 지켜본 후 결정”
75% “AI 대체 땐 신입 직원 영향”

국내 기업 임원 3명 중 1명은 인공지능(AI)이 사람보다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인력을 채용하는 대신 AI를 도입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글로벌 HR 통합 플랫폼 딜(Deel)이 명함

앱 ‘리멤버’에 의뢰해 올 6월 11~27일 국내 기업 임원급 인사 24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32.5%가 ‘AI가 더 높은 효율성을 입증할 경우 인력 채용을 AI로 대체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다만 절반 이상인 56.7%는 ‘우선 추이를 지켜본 후 결정을 내리겠다’고 했다.

응답자 4명 중 3명(75%)은 인력을 AI로 대체할 경우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직군으로 신입 지원자를 꼽았다. 또 2명 중 1명(47%)은 AI의 도입이 실제 채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인식했다. AI 도입으로 가장 영향을 받는 직무로는 △개발·엔지

니어링(35%) △고객 지원(21%) △회계·법무 등 백오피스(18%) 순으로 꼽았다. 응답자의 67%는 ‘AI가 코딩 작업을 지원해 개발자 수요가 줄고 있다’고 답했다.

AI가 신규 채용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지만 기존 인력에 대한 영향은 작은 것으로 보인다. ‘최근 1년간 실제로 AI로 인한 인력 감축이나 직무 변화가 없었다’는 응답은 74%로 다수를 차지했다. 다만 5명 중 1명(20%)은 ‘AI 도입으로 인해 재교육이나 직무 전환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김하경 기자 whatsapp@dong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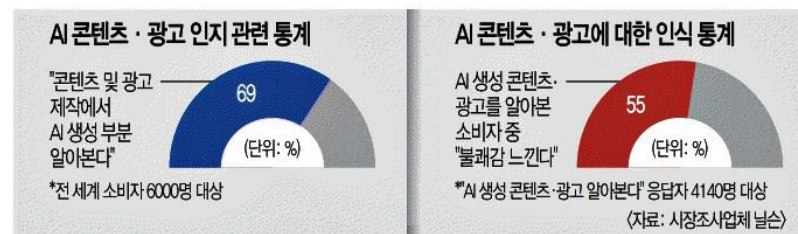
“묘하게 불편하네”… AI, 광고시장 흔들지만 ‘거부감’은 벽

국내외서 AI 활용 광고 사례 늘어
AI 인지한 소비자 55%는 ‘불편함’
“다양성 구현 모델이 거부감 줄여”

인공지능(AI) 기술이 광고 시장도 흔들고 있다. 제작 과정에서 장소나 모델 섭외는 물론, 촬영조차 필요가 없다보니 국내외 많은 기업들이 AI로 제작한 상업 광고를 적극 활용하는 추세다. 문제는 소비자가 느끼는 ‘본능적 거부감’이다. AI 광고라는 점을 인식한 소비자의 절반 이상이 부정적 감정을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결국 AI 광고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소비자의 불쾌감부터 극복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국내 기업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해 제작한 광고를 선보이는 사례가 늘고 있다. LS그룹은 지난달 20일 AI로 영상과 음향을 만든 전력 시스템 광고를 공개했다. LG생활건강의 세탁세제 브랜드도 탁구선수 신유빈을 AI로 구현해 광고를 완성했다. 소비자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고도로 발달한 기술에 감탄하기도 했지만, 거부감을 표하는 이들도 있었다. 서울우유가 지난해 4월 광고에서 배우 박은빈의 아역 시절 모습을 AI로 재현했을 당시에 일부 누리꾼들은 “너무 똑같아서 무섭다” “기괴하다” 등의 반응을 보인 바 있다.

실제 많은 소비자들은 AI로 생성한 콘텐츠나 광고에 거부감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장조사업체 닐슨이 지난 1월 전 세계 소비자 6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69%는 콘텐츠나 광고에서 AI를 활용한 부분을 알아볼 수 있다고 했다. 또 AI로 만든 콘텐츠 및 광고를 인지한 소비자 중 55%는 감정적으로 ‘불편함’을 느꼈다고 응답했다.

기업 입장에서는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AI 광고를 외면

하기 어렵다. 광고 업계도 적극적으로 AI 기술 개발에 뛰어들고 있다. 미국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 어도비는 29일(현지시간) 콘텐츠 플랫폼 젠스튜디오에 광고 제작을 위한 AI 기능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어도비 측은 기존 영상을 다양한 광고 형식에 맞게 자동으로 재구성하거나, 정지된 이미지로 짧은 영상을 생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데이

터 플랫폼 기업 아이지에이웍스도 지난 9일 ‘AI 전속 모델 상품’을 출시하고 30종에 이르는 AI 모델을 선보였다.

전문가들은 기업이 AI 광고를 포기할 수 없다면, 소비자의 불쾌감을 해소할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명예교수는 “대중이 AI 광고에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인간의 영역이라 생각되는 ‘감성’ 추구형 광고가 아닌 정보 제공 중심의 광고로 접근해 보는 게 좋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AI 광고에서 많이 활용하는, 젊고 외모가 뛰어난 모델보다는 다양성을 구현한 모델이 거부감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박선영 기자 pomme@kmib.co.kr

‘과학자 AI’ 회의 열었더니... 며칠 만에 코로나19 치료제 후보 92개 도출

AI 에이전트로 구성된 가상 연구실 각 분야별 전문가 AI 생성해 논의

다양한 역할의 ‘인공지능(AI) 과학자’가 모인 가상 연구실에서 며칠 만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 아이디어가 제안됐다. AI들은 짧으면 몇 초, 길어야 몇 분 안에 끝나는 자체 회의를 동시에 여러 개 진행하며 복잡한 연구 전략을 알아서 세우고 진행했다.

제임스 조 미국 스탠퍼드대 생의학데이터과학

과 교수와 존 박 켄 저커버그 바이오허브 연구원 공동연구팀은 AI 에이전트들로 구성된 가상 연구실을 운영해 새로운 코로나19 치료제 아이디어를 빠르게 도출하는 데 성공하고 연구 결과를 지난달 29일(현지 시간)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공개했다. 감염병이나 생물학, 임상 등 전문가들이 몇 주에 걸친 노력을 해야 결과를 낼 수 있는 미션을 AI가 스스로 며칠 만에 해낸 것이다.

가상 연구실은 사람이 수석 연구자 역할을 맡은 AI에게 과제를 부여하면서 시작된다. 수석 AI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추가 AI 에이전트를

생성하고 스스로 연구실을 운영한다. 대규모 언어 모델(LLM)로 구동되는 AI 에이전트는 과학적 추론, 의사결정 능력을 갖췄다.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프로젝트에서 수석 AI는 면역학, 계산생물학, 머신러닝 분야 전문가 AI 에이전트를 생성했다. 현실에서는 즉각 구성하기 어려운 다학제 연구실을 순식간에 자체적으로 구축한 셈이다. 예상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건설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는 ‘비판적 AI’는 프로젝트를 가리지 않고 포함됐다.

AI들은 회의를 열고 아이디어를 논의했다. 화

장실에 다녀올 시간이나 간식 등이 필요한 사람들의 회의와 다르게 AI들은 짧으면 몇 초, 길어도 몇 분 안에 회의를 끝냈다. 한 AI가 여러 회의에 동시에 참석하는 것도 가능했다. 필요한 도구를 요청하기도 하고 데이터도 직접 분석한다. 연구팀은 이 과정에서 비현실적이거나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검증하기 어려운 아이디어는 논의에서 제외하도록 사전에 명령했다.

AI들은 기존 항체 치료제 대신 나노항체(nanobody)를 새로운 치료제로 제안하고 후보 설계안 92개를 생성했다. 항체는 바이러스가 숙주세포에

침투하기 위해 결합하는 부분에 먼저 달라붙어 감염을 막고 파괴를 유도하는 단백질이다. 나노항체는 라마 등 낙타과 동물에서 발견된 항체로 크기가 인간 항체의 4분의 1 수준으로 작다. AI는 나노항체의 크기가 작아 모델링과 설계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했다.

AI가 제안한 나노항체들을 실험실에서 합성한 결과 후보 중 2종류가 코로나바이러스에 강하게 결합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AI를 통해 범용 치료제 개발 가능성이 제안된 것이다.

연구팀은 “실험 데이터를 다시 가상 연구실로 전달해 나노항체 설계를 개선하고 있으며 가상 연구실을 다른 문제 해결에도 적극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병구 동아사이언스 기자 2bottle9@donga.com

AI로 지역배전망 현대화 태양광 발전 실시간 제어

‘차세대 전력망 추진단’ 발족

李정부 RE100정책 뒷받침
전력망 일방향 → 양방향
재생에너지 활용률 극대화

정부가 지역 단위 소규모 배전망을 인공지능(AI) 기술로 현대화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업단지 조성, 햇빛·바람연금 지급 등 새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실시간으로 예측하고 제어하는 AI 활용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1일 브리핑에서 “2026년도 예산을 2000억원가량 확보해 광양 철강산업, 여수 석유화학산업 등 전남지역에서 대여섯 개 차세대 전력망 사업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기존 산업에 재생에너지를 원활히 공급해 RE100 전환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실장은 “차세대 전력망 사업은 단기, RE100 산업은 중기, 에너지 고속도로(초고압 송전망 구축)는 장기로 나눠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에너지 고속도로가 전국 단위 송전망을 구축하는 것이라면 차세대 전력망은 지역 단위 소규모 배전망을 더 촘촘하게, 양방향으로 구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전력망은 송전망에 연결된 대형 화력·원자력발전소가 생산한 전기가 전국 수요처로 전달되는 단방향(발전→송전→배전) 계통이다. 이번에 추진되는 차세대 전력망은 배전단에 연결된 태양광발전소 등에서 나온 전기가 배전망을 통해 수요처로 보내지고 남은 전기는 송전

➤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기존 대형 발전소에서 일방향으로 전기를 보내던 구조에서 벗어나 지역 단위에서 태양광 같은 소규모 발전원이 생산한 전기를 배전망을 통해 수요처로 보내고 남은 전기는 다시 송전망으로 올리는 양방향 구조.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전력 생산과 저장, 소비를 최적화해 에너지 활용률을 극대화한다.

망으로 다시 전송되는 방식의 양방향(발전↔배전↔송전)이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배전단에 연계된 분산에너지는 25.5GW로, 96%가 소규모 태양광 발전이었다. 이 비중은 재생에너지 확대 기조에 따라 2028년이면 36.6GW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태양광 발전 비중은 95%로 늘어난다. 하지만 태양광과 풍력 등은 날씨와 시간대에 따라 발전량이 달라 예측이 어렵다. 정부는 AI 기술로 발전량과 수요를 정밀하게 예측하고, 계통에 여유가 있는 시간대에 재생에너지 활용률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전남에서 차세대 전력망 실증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전남이 국내 최대 재생에너지 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한국에너지공대와 한전 등 차세대 전력망 관련 연구기관과 공기업이 밀집해 있으며 철강, 화학, 조선 등 지역 주력 산업과 연계한 대규모 실증에 유리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 관계자는 “석유화학업종이 많은 산업에서 공장 지붕에 패널을 깔고 태양광 잉여 전력을 열로 변환하거나 공정 폐열을 활용한 전기 생산을 실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리안기자

고정밀지도·망 이용대가 제외...IT업계 한숨 돌려

**양국 비관세장벽 협상 여지 남겨
온플법, 통상 마찰 불씨 가능성**

미국 정부가 비관세장벽으로 지목한 온라인플랫폼법, 고정밀지도, 망 이용대가 등이 이번 한미 무역협상에서 제외되면서 정보기술(IT) 업계에는 한숨 돌리는 모습이다. 하지만 한미 양국이 향후 비관세장벽 협상에 대한 협상 여지를 열어둬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고정밀지도 데이터 반출 문제나 방위비 문제, 무기 수입 협상 등과 관련 “이는 별개의 이슈로 이번 협상 결과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IT 업계는 주요 현안이 무역 협상에

서 제외됐다고 안도하면서도 향후 상황은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온플법의 경우 당장은 의제에서 제기됐지만 통상 마찰 가능성이 여전하다고 보고 있다. 한국 정부도 무역 협상 단계에서는 온플법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기 때문에, 여당에서 법안을 추진하면 통상 마찰이 불가피할 가능성이 높다.

고정밀 지도 반출은 정부가 안보를 이유로 불허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다음 달 11일까지 구글의 축척 1대 5000의 고정밀 지도 해외 반출 요청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망 이용대가 문제도 협상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통신사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다만 향후 실무협상 등이 남아있고 미국이 유럽연합(EU)

과의 무역 협상에서는 망 이용 대가를 논의 테이블에 올린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예의주시하겠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클라우드 보안 인증제(CSAP)도 정부가 업계 의견 등을 수렴했으나 최종 협상 테이블에 오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CSAP는 국내 공공 시장 진출 필수 인증으로 꼽힌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미국 클라우드 기업 모두 CSAP를 획득했고, 아마존 웹서비스(AWS), 마이크로소프트(MS) 등은 이를 통해 공공 사업을 수주하기도 했다”며 “무역장벽으로 보기에 다소 약한 측면이 있어 이번 협상에서 본격 논의되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변상근·박지성·김지선기자

sgbyun@etnews.com

NIPA “AI 전담조직 3본부 체제 확대…3대 강국 도약 뒷받침”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 목표에 맞춰 조직 개편을 단행한다. AI 전담조직을 강화, 범정부 차원에서 진행 중인 ‘AI 대전환’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박윤규 NIPA 원장은 31일 취임 100일을 맞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8월 1일자로 AI 전담 조직을 기존 2본부에서 3본부 체제로 확대한다고 전했다. NIPA 예산이 기존 6000억원 수준에서 2조 4099억원까지 증액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정부는 국가 AI 역량 강화를 위해 1·2차 추경을 진행한 바 있다.

박 원장은 “추경 통과에 따라 기관 예산 구조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기존 태스크포스(TF) 형태로 운영하던 조

박윤규 원장 취임 100일 간담회
인프라·반도체·활용본부 구성
AX 촉진·인프라 확충 팔걸이
정책기획단 신설해 산업 혁신

직 운영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전문적이고 유기적인 조직 체계를 통해 정보통신기술(ICT), 특히 AI 산업 발전을 견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3본부는 △AI인프라본부 △AI반도체지원본부 △AI활용본부로 구성된다. AI반도체지원본부는 AI반도체 전략 수립과 실증 확산, 신사업 기획 등을 수행한다. 단말형 AI, 피지컬 AI 등 미래 전략 분야도 함께 육성한다.



박윤규 NIPA 원장(오른쪽)이 31일 간담회에서 AI 전담 조직 개편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AI를 활용한 산업 고도화와 융합 사업 확대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AI활용본부는 일상생활과 산업 현장에 AI 활용을 확산시키는 역할을 맡는다. AI 에이전트 관련 신규사업

과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도 추진한다. 국민 체감형 AI 사업의 핵심 추진 조직으로 기능한다.

박 원장은 “임기 동안 국정 방향과 연계해 ‘AI 대전환과 도약’ ‘AI 인프

라 확충’ ‘선제적 미래 대응’ 등을 목표로 삼고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AI 중심 산업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AI 인프라 조기 확충 △국가 AI대전환 촉진 △글로벌 수출 재도약 △미래를 선도하는 ICT 전문 기관 실현을 경영 방향으로 정했다.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정책기획단’도 신설했다. 디지털 신산업과 신기술 관련 정책 기획, 규제 개선, 산업 인재 양성 등을 전담하는 부서다. 정부 디지털 전략과 산업 생태계 조성을 뒷받침한다. 규제 유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AI 산업 인력 기반 확대에 이바지한다는 목표다.

지역 조직은 기존 지역디지털본부를 지역인공지능전환(AX)본부로 개편한다. 지역 맞춤형 AI 전환 실증지

구 조성, 산업 특화 피지컬 AI 사업 등 대규모 신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지역 균형 발전과 AI 기반 산업 혁신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 기존 소프트웨어미래본부와 메타버스본부는 ‘소프트웨어융합본부’로 통합해 조직 운영 효율성을 높인다. 글로벌본부는 현행 체제를 유지하고, 디지털 관세 대응과 수출 기능 일원화 등 일부 기능을 보강한다.

박 원장은 “급변하는 ICT 산업 환경에서 국가 디지털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는 핵심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산업계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민관과 정부, 학계가 협력하는 국가 ICT 생태계 플랫폼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류태용기자 higheroryu@etnews.com

‘AI로 돈 벌수 있나’ 시장 의구심 지운 MS·메타 2분기 실적



AI로 수익내는 빅테크

MS·메타 매출, 각 18%·22% 뛰어
MS 서비스 코파일럿 사용자 1억명
메타, 광고 추천 시스템 도입 효과
AI 인프라 투자 경쟁 더 거세질 듯

빅테크의 인공지능(AI) 투자가 기술 선점 단계를 지나 본격적인 수익 창출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AI 비즈니스의 수익성을 확인한 빅테크들은 더욱 공격적으로 인프라 투자를 늘리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MS)와 메타는 30일(현지시간)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분기 실적을 발표했다. MS의 2분기 매출은 764억4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했다. 메타 역시 같은 기간 21.6% 늘어난 475억2000만 달러의 매출을 냈다. 두 기업 주가는 실적 발표 직후 시간외 거래에서 6~10% 급등했다.

그동안 ‘막대한 자금 투입에도 돈을 벌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는 평가를 받던 AI가 이제 수익을 끌어올리는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MS는 이번 실적 발표에서 처음으로 애저(Azure) 클라우드의 연간 매출을 별도로 공개했는데, 이 금액이 750억 달러였다. 전년 대비 34% 성장한 수치다. MS에 따르면 대표 AI 서비스인 코파일럿(Copilot)의 월간활성사용자수(MAU)는 1억 명을 넘겼다. 사티아 나델라 MS 최고경영자(CEO)는 “클라우드와 AI는 모든 산업과 분야에서 비즈니스 혁신을 이끄는 원동력”이라고 말했다.

메타 역시 광고 추천 시스템에 AI를 도입한 결과 광고 단가가 9%, 클릭률은 11% 올랐다고 밝혔다. 광고는 메타 전체 매출의 98%를 차지하는 주요 수입원이다. 메타는 내년 말까지 AI 도구로 광

고주의 광고 제작·타겟팅 전 과정을 완전 자동화할 계획이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는 “목표와 원하는 예산만 제시하면 나머지는 모두 우리가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업계에선 AI 비즈니스가 ‘가능성’의 영역에서 실제 돈을 버는 ‘현실’의 영역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까지 AI는 실제 매출 기여보단 기술 선점과 시장 기대감에 부응하는 용도에 가까웠다. 실적발표 때 AI 투자 계획을 밝히면 주가가 떨어지기도 했었다. 언제 매출을 낼지 불분명했기 때문. 하지만 1년여 만에 두 회사 모두 AI를 실제 서비스에 붙여 핵심 사업의 매출을 끌어올렸고, AI 비즈니스의 수익성을 증명했다. 에이미 후드 MS 최고재무책임자(CFO)는 “돌아오는 분기에도 인프라 투자 예산이 잡혀있지만, 이는 매출과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다”고 말했다.

AI 비즈니스의 전장(戰場)도 모델 경쟁에서 누가 그 모델을 안정적으로 구동할 수 있는지로 옮겨가면서, 빅테크의 인프라 투자 경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연산 자원, 데이터센터, 전력 인프라 같은 물리적 기반이 경쟁력을 좌우해서다. 이들의 설비투자(CAPEX) 계획 역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고 있다. MS는 이번 분기 AI 데이터센터 등 AI 인프라 확장을 위해 242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다.

메타는 이 중 대부분을 초지능(Super intelligence·인간 수준을 넘는 AI) 연구개발에 투입할 예정이다. 메타는 올해 ‘수퍼인텔리전스랩’을 설치하고 업계 최고 수준 인재를 적극적으로 영입 중이다. 저커버그 CEO는 실적발표에서 “모든 사람에게 퍼스널 수퍼인텔리전스를 제공하는 게 메타의 비전. 최근 몇 달간 메타의 AI 시스템이 스스로 개선되는 초기 신호를 포착했다”고 언급했다.

권유진 기자 kwen.yujin@joongang.co.kr

저커버그 “초지능 AI 오픈소스 공개 신중”

강력한 AI는 새로운 위험
오픈소스 전략 수정 시사
“돈 벌기 위한 것” 지적도
“초지능 AI, 개발 가시권
창작·표현 돕는 도구될 것”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가 인간의 지적 능력을 뛰어넘는 ‘초지능’ 등 고성능 인공지능(AI) 기술을 앞으로 오픈소스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대규모언어모델(LLM) ‘라마’를 앞세워 오픈소스 AI 생태계를 주도해 왔던 메타가 폐쇄형 모델 도입 가능성을 처음으로 밝힌 것이어서 주목된다.

저커버그 CEO는 30일(현지시간) 발표한 연례 서한에서 “초지능 모델 개발이 가시권에 들어왔다”며 “이는 인간의 역량을 극대화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 기술”이라고 말했다. 메타는 올해 전문학적인 성과급과 함께 미국 실리콘밸리 상위 0.1% AI 인재 수십 명을 영입한 뒤 ‘초지능랩’을 조직했다. 저커버그 CEO는 “앞으로 몇 년 안에 AI는 기존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지금은 상상조차 어려운 것들의 창조와 발견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커버그 CEO는 이어 초지능 모델의 부작용을 언급하며 메타의 AI 전략 변화를 시사했다. 그는 “초지능의 혜택은 널리 퍼져야 하고, 전 세계가



메타의 초지능 비전

전략	모두를 위한 개인용 초지능	목표	인간 선택권과 개인 성장 돕는 AI	활용	창작, 인간관계, 자기개발 지원	기술	AR 안경 등 컴퓨팅 디바이스에 적용
-----------	----------------	-----------	---------------------	-----------	-------------------	-----------	----------------------

오픈소스·폐쇄형 AI 비교

구분	오픈소스	폐쇄형
정의	구조, 데이터 등 공개	개발 기업이 비공개 운영
사례	라마, 미스트랄, 답시크	GPT 시리즈, 제미니, 클로드
장점	투명성, 빠른 혁신, 활용도	수익성, 안전성, 신뢰성
단점	오남용, 책임 소재 불분명	독점 우려와 비용 부담

증강현실(AR) 안경 ‘오라이언’을 착용한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

메타



초지능

인간의 지적 능력을 뛰어넘는 수준의 인공지능(AI)을 의미한다. 인간 수준의 ‘범용 AI(AGI)’보다 한 단계 높은 개념으로, 과학·전략·창의성 등 분야에서 인간보다 우수한 판단과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AI를 뜻한다.

함께 나눠야 할 기술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위험을 만들 수 있다”며 “어떤 모델을 오픈소스로 공개할지는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메타가 지금까지 유지해온 오픈소스 중심 전략에 변화가 생겼음을 의미한다. 메타는 그동안 라마 등 주요 AI 모델들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해왔다. 폐쇄형 모델을 유지해온 오픈AI, 구글, 앤스로픽, 답시크, xAI 등과 다른 노선이었다. 구조와 내부 작동 방식 등을 기업이 독점적

으로 관리하는 폐쇄형과 달리 오픈소스 모델은 개발자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어 기술 확산에 유리하지만 수익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불리하다.

초지능 기술이 가시권에 들어섰다고 판단한 메타는 고성능 모델에 대해서는 폐쇄형 전략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너무 강력한 AI는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초지능이 악의적으로 활용될 경우 기존 AI와는 차원이 다른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오픈AI도 올해 초 오픈소스 모델 출시를 앞두고 안전 우려가 제기되자 이를 무기한 연기했다.

AI 업계는 그동안 오픈소스와 폐쇄형 전략을 놓고 양분돼 있었지만 이제 두 전략을 병행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메타 역시 “기존 오픈소스 모델은 계속 공개하겠지만, 초지능에 가까운 모델은 폐쇄형으로 개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메타의 전략 변경이 돈을 벌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보기술(IT) 전문 매체 테크크런치는 “AI 기술을 공개하지 않으면 기업이 이를 상품화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통제권을 가질 수 있다”며 “메타는 여전히 광고 수익에 의존하고 있다”고 전했다.

저커버그 CEO는 메타가 추구하는 초지능의 방향성도 함께 제시했다. 그는 “우리 삶에 더 깊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자신만의 ‘개인용 초지능’을 갖게 되는 순간”이라며 “초지능을 개인의 창작과 표현을 돕는 도구로 삼겠다”고 말했다.

메타가 개발 중인 증강현실(AR) 안경에 초지능을 결합하겠다는 계획도 내놴다. 그는 “온종일 사람과 시선, 청각을 공유하며 상호작용하는 AR 기기가 주요 컴퓨팅 수단이 될 것”이라며 “2020년대 후반은 초지능 기술의 방향을 결정짓는 시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리콘밸리 원호섭 특파원

'심박수 오른 이유까지 파악' 구글 스마트워치용 AI 공개

웨어러블 모델 '센서LM'

생체데이터 5970만 시간 학습
사용자 활동 분류·분석에 탁월

구글이 스마트워치 전용 인공지능(AI) 모델을 선보였다. 심박수 같은 생체신호를 분석해 사용자 일상과 건강 관리를 돕는 스마트워치 기능을 극대화하도록 맞춤 학습시킴으로써 기존 스마트폰에 이어 전 세계 수억 명 사용자를 겨냥한 웨어러블(착용형) AI에서도 주도권을 잡겠다는 구상이다. 삼성전자와 애플도 신기술 개발로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31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28일(현지 시간) 스마트워치 등 웨어러블 기기 전용 파운데이션(기초) 모델 '센서LM'을 공개했다. 센서LM은 기존 대형언어모델(LLM)처럼 언어 데이터에 더해 심박수, 체온, 걸음수, 피부전도도(EDA) 등 생체신호 측정 데이터를 함께 학습하고 둘 사이의 관련성을 분석할 수 있다. 가령 사용자의 심박수가 올라갔을 때 그 이유가 격한 운동 때문인지 떨리는 대중 발표 때문인지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맞춤 코칭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 인식 능력은 실시간 측정되는 생체신호 데이터를 함께 학습하지 않은 기존 LLM으로는 갖추기 쉽지 않

다는 게 구글의 설명이다. 생체신호 데이터는 하루 20만 여 토큰(LLM이 텍스트를 처리하는 기본 단위)에 달해 LLM이 기존 언어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기엔 비효율적이다. 센서LM은 대신 구글 제품 '핏빗'과 '픽셀워치' 사용자 10만 3643명으로부터 총 5970만 시간 분량의 센서 데이터를 학습해 성능을 특화했다. 구글은 자체 평가 결과 센서LM은 걷기 등 20가지 사용자 활동을 분류하는 성능이 0.84로 자사의 최신 범용 모델 '제미니 2.0 플래시'(0.51)를 크게 웃돌았다고 전했다.

구글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통해 삼성전자 '갤럭시워치' 시리즈에 제미니를 탑재해온 만큼 센서LM 역시 향후 갤럭시워치 성능 고도화에 쓰일 가능성이 점쳐진다. 구글은 "센서LM이 차세대 디지털 건강 코치, 임상 모니터링 도구, 개인 웰니스 애플리케이션 개발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스마트워치 제조사 삼성전자와 애플도 자체 AI 기술을 확보 중이다. 삼성전자는 최근 김재경 한국과학기술원(KAIST) 수리과학과 교수 연구팀과 손잡고 차세대 수면 알고리즘을 신제품 '갤럭시워치8'에 탑재했다. 애플은 지난달 차세대 '애플워치' OS에 자사 AI '애플 인텔리전스' 기반의 운동 코치 '워크아웃 버디'를 탑재한다고 발표했다. 김윤수 기자

매일경제

2025년 8월 1일 금요일 A16면 종합

AI로 지구 생태계 스캔...구글, '알파어스' 공개

위성데이터로 고정밀 지도
토양·식생·기후 실시간 관찰

구글 딥마인드가 지구 관측 패러다임을 바꿀 새로운 인공지능(AI) 모델 '알파어스 파운데이션'을 30일(현지 시간) 공개했다. 각종 지구 관측 데이터를 분석해 손쉽게 고품질 지도로 표현할 수 있게 해주는 모델이다.

알파어스 파운데이션은 위성 분석 전용 AI다. 지구 전체를 가로×세로 10m 정밀도로 가상 스캔해 생태계 변화, 농업 상황, 기후 변화 등을 추적할 수 있다. 위성 영상, 레이더, 3차원

(3D) 데이터, 기후 시뮬레이션 등을 조합해 매년 1조4000억개에 달하는 지역 데이터를 생성한 뒤 이를 기반으로 '디지털 지구 지도'를 만든다.

이어 위성 데이터를 분석한 뒤 인간이 처리할 수 있도록 압축해 필터 형태로 지도에 표현한다. 각 필터는 토양 성분, 식생 유형, 지하수 위치, 건물 분포 등 다양한 지표를 나타낼 수 있다. 알파어스는 남극처럼 위성 영상이 불규칙한 지역의 지형을 선명하게 복원했고, 육안으로 구분되지 않는 캐나다 농지의 경작 패턴도 감지해냈다.

구글은 "이 모델을 통해 누구나 원하는 지역의 생태·기후 정보를 실시

간으로 호출해 볼 수 있다"며 "식량 안보, 삼림 벌채, 도시화, 수자원 관리, 도시계획 등 전 지구적 문제를 풀기 위한 과학적 연구를 더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나 기업이 일조량·지하수 분포 등을 종합 분석해 최적의 태양광 패널 설치지와 기후 회복력이 높은 건축 용지를 찾거나, 특정 작물 재배에 적합한 지역을 파악하는 데 쓰일 수 있다.

기존 구글어스 엔진은 위성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플랫폼이었지만 알파어스가 도입된 이후 맞춤형 고해상도 지도 생성까지 가능해졌다.

실리콘밸리 원호섭 특파원

스테이블코인 ‘비은행 발행’ 허용 기류...무한경쟁 열리나

정치권 법안, 업권 구분 없어
빅테크·거대소 사업준비 활발
반대 입장 한은 ‘마지막 장벽’

스테이블코인 발행권한을 두고 금융권과 빅테크 진영간 갈등 양상이 비화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비은행 발행 허용 쪽으로 무게를 싣고 있어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정치권과 금융권 따르면 7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 3건 모두 비은행권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 기본법’은 자기자본 5억원 이상 국내 법인이면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아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법’은 금융위원회의 사전 인가를 받은 △자기자본 50억원 이상을 확보한 △금융기관 또는 상법상 주식회사가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게 허용했다. 김은혜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법’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 비교

의원실	발행주체	자본금 요건
민병덕	상법상 주식회사 혹은 외국법령에 따라 해당 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국내에 필요한 지점이나 영업소를 설치한 자 등	5억원 이상
안도걸	금융기관 또는 상법상 주식회사	50억원 이상
김은혜	금융기관 또는 상법상 주식회사	50억원 이상

은 금융위 사전인가를 받은 △자기자본 50억원 이상의 △상법상 주식회사와 국내 영업소를 둔 해외 사업자라면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가능하여지도록 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발행 자격을 업권에 따라 구분하지 않은 것은 발행주체를 은행권에 한정할 필요가 없다는 보편적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규제 흐름도 비슷하다.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를 담은 미국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이나 유럽연합(EU) 가상자산규제법(MiCA)은 발행요건 중심을 법정화폐에 대한 1:1 준비자산 보유와 자본요건으로 규정했다.

금융위 역시 하반기 입법을 준비 중 가상자산법 2단계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은행이나 금융사에 국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스

테이블코인은 글로벌 규제 환경 흐름과 비슷하게 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 출신인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이 사안에 밝다는 것도 비은행권이 거는 기대 중 하나다.

이창영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스테이블 코인 관련 영향이 가장 큰 업종은 은행”이라면서도 “한국 정책 환경을 감안 시 은행을 시작으로 비은행에 점진적 허가를 하는 방식이 유력하다”고 전망했다.

또 국내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 시 △결제대행사 포함한 핀테크 기업 △e커머스 플랫폼을 포함한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 △가상화폐 거래소 △블록체인 플랫폼 구축 및 유지해주는 SI기업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마지막 장벽은 한국은행 정도다. 한은은 그동안 통화정책 교란, 인플레이션 우려, 시노리지(이익) 문제 등을 이유로 비은행 스테이블코인 발

행에 일관되게 반대했다. 다만, 한은은 최근 은행권 반발 등으로 고려해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를 검증하는 ‘프로젝트 한강’ 2차 테스트를 잠정 연기하는 등 디지털화폐 정책에서 리더십 부재를 노출하기도 했다.

비은행권은 활발하게 사업을 준비 중이다. 현재 국내에서 비은행 주도 스테이블코인 발행 준비는 빅테크와 가상자산 거래소 중심으로 양분돼 있다. 대표 업체가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그리고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를 운영하는 두나무다.

이미 네이버페이와 두나무는 연합전선을 꾸렸다. 양사는 ‘네이버페이가 주도하고 두나무가 협력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며, 향후 조인트벤처(JV) 설립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단계로 알려졌다.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발행→유통→결제까지 통합한 네이버-두나무 생태계는 은행권 스테이블코인을 압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졌다”고 평가했다. 두 회사 모두 은행업을 하지 않지만 수신을 제외한 상당수 영역에서 은행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자본과 기술력이 있다는 것이다.

김시소기자 sisos@etnews.com

LG, 데이터 라벨링 스타트업 투자 AI 분야 누적 투자액 1억달러 돌파

美 '마이크로 원'에 전략적 베팅
피규어·스킬드 AI 이어 세 번째
미래사업 ABC 중 가장 많이 투자

LG가 최근 데이터 라벨링 스타트업 '마이크로 원'의 시리즈A(초기 스타트업을 위한 투자) 투자자로 이름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인공지능(AI) 성능 강화를 위한 데이터 확보를 위해 전략적 투자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LG테크놀로지벤처스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팰로앨토에 본사를 둔 데이터 라벨링(Data Labeling) 기업 '마이크로 원(Mico1)' 투자에 참여했다. 투자액은 알려지지 않았다. 이는 5월 '피규어 AI', 6월 '스킬드 AI' 투자에 연이은 AI 분야의 베팅이다.

LG테크놀로지벤처스는 이번 투자를 통해 AI 분야의 누적 투자 금액이 1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LG가 미래 사업으로 육성 중인 ABC(AI·바이오·클린테크) 중 가장 높은 투자 비율을 차지한다. 피지컬 AI 기업부터 데이터 라벨링 스타트업까지 AI 생태계 전반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에 나서는 것으로 보인다.

마이크로 원은 2022년에 설립된 데이터 라벨링 서비스 제공사다. 데이터 라벨링은 AI 모델이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등 원시 데이터를 이해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레이블을 부여하는 작업이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 AI는 차량, 보행자, 신호등 등의 데이터가 필요하고, 의료용 AI는 X-ray나 MRI 관련 고품질의 데이터 라벨링이 요구된다. AI 연구소 및 기업들은 마이크로 원과 협업을 통해 AI 모델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마이크로 원은 설립 초기 'AI 기반 채용 솔루션' 사업만 운영했으나, 최근 기업들의 전문 데이터(의료·화학·제조 등 분야별 특화 데이터) 라벨링 수요가 급증한데 발맞춰 데이터 라벨링 서비스에 나섰다. 특히 기존의 AI 채용 사업을 통해 확보한 전문가인력(152개국 10만여명)이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경쟁사로 꼽히는 '스케일 AI'는 최근 빅테크 기업 메타가 지분 49%를 확보하면서 다른 AI 선도 기업들과의 거래가 줄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시장에서는 마이크로 원과 같은 데이터 라벨링 기업들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LG테크놀로지벤처스는 지난 6월



구광모(오른쪽) (주)LG 대표가 지난해 6월 미국 실리콘밸리에 방문, LG테크놀로지벤처스가 투자한 주요 스타트업의 기술을 자세히 살펴보고 있는 모습 [LG 제공]

피지컬 AI 기업 '스킬드 AI'의 시리즈 B 투자에도 참여했다. 스킬드 AI는 AI 로봇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글로벌 톱 티어 기업으로 꼽힌다.

이외에도 LG테크놀로지벤처스는 다양한 AI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지속해 나가고 있다. ▷휴머노이드 기업 '피규어 AI' ▷AI 음성 기술 스타트업 '일레븐랩스' ▷AI 자율주행 스타트업 '벤티 테크놀로지' 등이 대표적이다.

LG 관계자는 "LG테크놀로지벤처스가 지금까지 투자한 AI 기업만 30여곳으로, 올해 들어서만 각기 다른 분야의 AI업체 9곳에 투자를 추진했다"며 "특히 AI 산업은 전체 생태계 육성이 중요한 만큼 다양한 영역에서 기반을 다져 나갈 것"이라고 했다.

LG테크놀로지벤처스는 2018년 5월 미국 실리콘밸리에 설립된 이후 AI, 바이오, 배터리, 모빌리티, 신소재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 90여곳과 펀드에 4억1000만달러 이상의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화학, LG유플러스, LG CNS 등 LG 주요 계열사 5곳이 출자한 4억3000만달러 규모의 펀드로 시작했으며, 2021년 LG에너지솔루션과 LG이노텍이 추가로 참여를 결정했다. 현재는 운용 펀드를 8억9000만달러(약 1조2000억원) 규모로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한편 구광모 (주)LG 대표는 미래 사업 ABC를 위한 역량 강화와 스타트업 투자에 힘써줄 것을 강조해왔다. 구 대표는 취임 이듬해인 2019년 LG테크놀로지벤처스를 방문해 글로벌 유망 스타트업 발굴을 통해 미래 준비를 당부한 바 있다. 2024년 6월에는 LG테크놀로지벤처스를 찾아 그간 투자한 주요 스타트업의 기술을 살펴보고, 10~20년 후의 미래를 위한 도전을 강조했다.

서경원 기자

“베스트샵서 가전 수거 후 수리” LG전자 수리맡김 서울로 확장

서울 2곳·경기 3곳 추가

LG전자가 고객이 수리가 필요한 제품을 베스트샵에 맡기고, 수리 이후 찾아가는 ‘수리 맡김서비스’를 서울로 확장했다.

LG전자는 서울 2곳(광진점, 노원점), 경기 3곳(남수원본점, 덕양본점, 산본점)에 수리 맡김서비스 운영 매장을 추가로 늘렸다. 현재 수리 맡김서비스는 전국 베스트샵 62개 매장에서 운영하고 있다.

앞서 LG전자는 서비스센터 방문이 어려운 고객을 위해 2015년부터 수리 맡김서비스를 운영해 왔다. 초기에는 서비스센터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을 중심으로 시작했다.

LG전자는 청소기, 노트북, 전

자레인지, 제습기, 공기청정기 등 소형 가전 제품에 한해 수리 맡김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객이 베스트샵을 찾아 제품을 맡기면 LG전자 서비스센터가 수거해 수리한다. 서비스매니저가 제품을 확인한 이후 상태와 비용에 대해 고객에게 전화로 안내한다. 수리가 끝나면 고객이 제품을 맡겼던 LG전자 베스트샵에서 제품을 찾아가는 방식이다.

LG전자 관계자는 “수도권 지역에 직장인과 대학생 등을 중심으로 수리 맡김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수요가 있어 서비스 지역을 확대했다”며 “고객의 수요와 만족도를 분석한 이후 서비스 지점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신영기자 spicyzero@etnews.com

디지털타임스

2025년 8월 1일 금요일 009면 산업과학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의 '서울박스'에 전시된 미디어 아티스트 추수의 대형 설치 미술 '아가몬 대백과: 외부 유출본'. LG전자 제공

LG전자·국립현대미술관 'OLED 현대미술' 선보여

LG전자는 오늘부터 2026년 2월 1일까지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의 '서울박스'에서 'MMCA X LG OLED 시리즈' 첫 전시를 진행한다

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생명과 욕망, 끊임없는 순환'이라는 주제를 다룬 대형 설치 미술 '아가몬 대백과: 외부 유출본'으로, 미디어 아티스트 추수(TZUSOO) 작가와 국립현대미술관, LG전자의 첨단 유기발광 다이오드(OLED) 기술이 함께 빛어낸 결과물이다. 이상현 기자 ishsy@



아가몬은 엄마가 되고 싶은 작가의 개인적 열망을 예술로 승화한 작품이자 디지털 세계를 살아 가며 육체의 존재를 인식하는 시대상을 반영한 것이다. 사진은 우뚝가사리와 이끼를 이용한 작품 '아가몬 5'(2025). 국립현대미술관 제공

〈국립현대미술관〉

국현·LG전자, 예술 지원 첫 작가 추수 선정

‘아가몬 대백과’ 오늘부터 전시

“우뚝가사리에 이끼 심은 산 조각
젠더 감수성·기술로 상상력 실험”



가몬 5'(2025)와 디지털 정령들이 등장하는 2채널 초대형 영상 설치 작품 '살의 여덟 정령-태'(2025), '살의 여덟 정령-간'(2025)으로 구성된다.

국립현대미술관(MMCA)과 LG전자가 손을 잡고 미래지향적 예술 지원 프로젝트 'MMCA×LG OLED 시리즈'를 시작한다. 프로젝트의 문을 여는 주인공은 그동안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의 감수성과 젠더 이슈를 날카롭게 포착해 온 추수(사진·33) 작가다.

현재 독일 베를린과 서울을 오가며 작품 활동을 하는 추수 작가는 이번에 생명과 욕망, 끊임없는 순환이라는 본질적 주제를 다룬 대형 설치 전시 '아가몬 대백과: 외부 유출본'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1일부터 2026년 2월 1일까지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의 개방 전시 공간 '서울박스'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우뚝가사리(agar)와 이끼로 구성된 살아 있는 조각 설치 작품 '아

전시의 중심축을 이루는 유기적 조각 '아가몬'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성장하고 변화하는 생명체로서 관람 공간의 환경 변화에 반응한다. 반면 '살의 여덟 정령'은 스크린을 통해 구현되는 디지털 존재로, 물리적 소멸의 한계를 넘어선 새로운 형태의 생명력을 제시하며 끝없는 순환과 변주를 통해 디지털 공간에서의 영속성을 탐구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추수 작가는 “물리적 신체 대신 우뚝가사리에 인공으로 심은 이끼가 자라는 과정을 생명체를 돌보는 과정으로 치환해 출산 이외의 방식으로 확장되는 성적 에너지, 젠더 감수성, 기술을 매개로 한 상상력을 실험하는 작품”이라고 밝혔다. 유용하 전문기자

LGU+, LG전자와 '무비스 & TV' 출시



LG유플러스 직원들이 'LG 무비스 & TV' 서비스를 시청하고 있다.

[LG유플러스 제공]

스마트TV 이용자 대상 유료 VOD 콘텐츠 수급·송출...플랫폼 다변화

LG유플러스는 LG전자와 손잡고 스마트TV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영상 콘텐츠 서비스 'LG 무비스 (Movies) & TV'를 국내에 출시했다고 31일 밝혔다.

LG 무비스 & TV는 LG 스마트TV에 탑재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최신 영화 등 콘텐츠를 구매·시청할 수 있는 유료 주문형 비디오(VOD) 서비스다. 지난해 영국·독일·스페인·이탈리아 등 유럽 4개국에 이어 올해부터는 국내에서도 LG 무비스 & TV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LG 무비스 & TV 이용 시 인터넷 TV(IPTV), 케이블TV, 온라인동영상 서비스(OTT) 등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최신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다. 기존에도 스마트TV 고객은 광고 기반의 무료 스트리밍 TV 서비스인 'FAST'를 통해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콘텐츠를 광고와 함께 시청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2021년 이후 국내 출시된 webOS 6.0 이상이 탑재된 LG 스마트TV를

보유한 고객이라면 누구나 서비스가 이용 가능하다.

LG유플러스는 IPTV 플랫폼 운영 경험과 콘텐츠 제공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신 콘텐츠 공급·편성, 안정적인 송출 등 역할을 맡는다.

현재 LG 무비스 & TV에서는 ▷하이파이브 ▷실사판 드래곤 길들이기 ▷실사판 킬로 & 스티치 등 최신 영화 콘텐츠 약 1800편이 제공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연내에 제공 콘텐츠를 2000편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나아가 신규 서비스 출시를 기념해 최신 인기 영화 VOD 구매 시 할인쿠폰 제공 등 이벤트도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양사는 스마트TV 이용 고객 콘텐츠 이용 편의성 개선은 물론 새로운 콘텐츠 시장 개척에도 나설 방침이다. 특히 LG유플러스는 IPTV 중심의 콘텐츠 유통을 스마트TV로 확장할 계획이다.

정진이 LG유플러스 미디어사업트 라이브장은 "LG전자 스마트TV를 이용하는 고객이라면 통신사 관계없이 누구나 고화질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새로운 콘텐츠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고재우 기자

한미협상 타결... 4500억弗 주고 '관세 15%'



30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이 한미 관세 합의 소식을 알리며 백악관 페이스북에 게재한 사진. 오른쪽 사진은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백악관 페이스북 캡처·김호영 기자

상호관세 부과 시한이었던 8월 1일을 하루 앞두고 한국이 미국과 무역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했다. 미국은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15%로 인하하기로 했고, 한국은 총 4500억달러 규모의 반대급부를 미국에 제공하기로 했다. 쌀·소고기 등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은 합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 **관련기사 A2·3·4·5·6·8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1일 오전 7시 16분(한국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대한민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 무역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대미투자 3500억달러에 더해 1000억달러 美LNG 수입 합의 쌀·소고기 추가 개방은 없어 車 15%...반도체 최혜국 대우
李 “국익 중심 실용외교 계속”

어 이재명 대통령도 SNS를 통해 “미국과 관세협상을 타결했다. 큰 고비를 하나 넘었다”고 소식을 전했다.

이번 합의로 미국은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한미 관세협상 주요 내용

▶ 상호관세율(자동차 포함)	15%
▶ 3500억달러 대미 투자펀드 조성	
· 조선	1500억달러
· 반도체·배터리·바이오·원전	2000억달러
▶ 미국산 LNG 등 수입	1000억달러
▶ 쌀·소고기 시장	추가 개방 없음

했다. 아울러 자동차 관세도 기존 25%에서 15%로 인하한다. 이는 일본과 유럽연합(EU) 등 한국보다 먼저 미국과 무역 협의를 이뤄낸 국가들과

같은 조건이다. 반도체와 의약품 등 향후 부과될 추가 품목별 관세에 대해서도 한국에 상대국 대비 가장 유리한 관세율을 적용하는 최혜국 대우를 인정하기로 했다.

한국은 미국에 총 4500억달러 규모의 반대급부를 제공하기로 했다. 1500억달러 규모의 조선산업 전용 한미 협력 펀드가 조성되고, 미국 전략산업에 투자하는 2000억달러 규모의 투자 펀드가 마련된다. 또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 액화천연가스(LNG) 등 1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산 에너지를 구매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2000억달러 규모의 전략산업 투자 펀드는 조선·반도체·바이오 등 우리산업의 미국 진출을 돕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특히 1500억달러는 조선 전용 펀드로 우리 기업을 든든히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쌀·소고기 시장 추가 개방은 협상 초기부터 미국 측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지만 정치적 민감성을 고려해 달라는 한국 측 요구가 받아들여졌다. **유준호·홍혜진 기자**